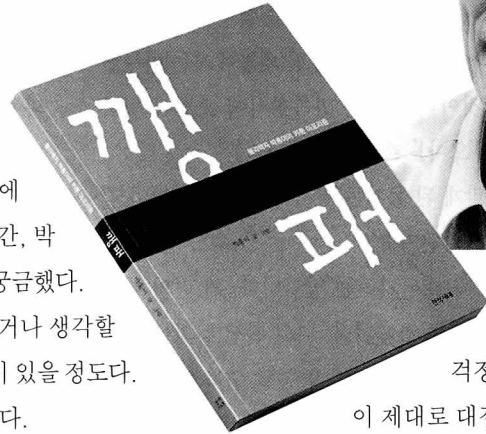


네모 칸에 그려 넣은 사색과 깨달음의 순간

《물리학자 박홍이의 카툰 아포리즘 캠페》 퍼낸 박홍이 교수



박홍이 교수

창작시대/B5변형/120면/6500원

“잘 모르면 문 열린 방을 찾아요.” 박홍이 교수(58, 연세대 물리학과)는 인터뷰 약속 끝에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어두운 과학관 복도 한켠에서 흘러나오는 반사빛. 저기다. 반가운 마음에 불쑥 들어서니 아뽀싸! 죽도가 날아온다. 모두 놀라 우뚝 선 순간, 박 교수의 눈빛은 저것이 무덤이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 눈빛이 궁금했다. 순간에 무덤이라 여긴 이 느낌도 흥미로웠다. 박교수는 집중하거나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죽도를 든다. 연구실 문틀에는 죽도에 눌린 자국이 있을 정도다. 불시에 날아든 그 죽도도 박교수의 ‘집중과 생각 사이’였던 것이다.

박교수는 《물리학자 박홍이의 카툰 아포리즘 캠페》(창작시대)를 쓰고 그렸다. ‘캠페’는 박교수가 만든 말이다. ‘판을 깨는 사람, 새판을 짜는 선각자(prophet)’라는 뜻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부터 <눈에는 눈>까지 글 그림이 짝을 이룬 작품 48편이 저마다 다른 생각거리를 선사한다. 성자의 잠언처럼 많은 독자들의 책상 머리를 장식할 짧은 글들이 긴 생각을 담았다.

“새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끓는 물은 제 모양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초월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자취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운 가루는 여러 번 체를 쳐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 필요한 지혜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걸러진 것입니다. <도덕경> <손자병법> <주역> <탈무드>는 모두 고운 체에 걸러진 지혜입니다.” 구절마다 그의 삶과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웃음으로 만든 얼굴 주름에 사색과 깨달음이 주렁주렁 열렸다.

“물리학회에 네컷 짜리 만화를 연재하면서 만화 그리기를 정식으로 시작했어요. 회의 때마다 그림 그리던 제 모습을 기억하는 후배의 제의로 5년째 그리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글도 쓰고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책 그림에 색을 칠해준 이는 따로 있어요.”

독자들이 책이 이렇게 말끔하게 나온 것을 모두 박교수만의 공으로 알까봐 한

걱정이라고 덧붙인다. 모든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게 정의라는 플라톤의 말이 진실로 옳다는 이야기도 한다. 생명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대하는 태도가 늘 같은 그의 부드럽고 겸손한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교수가 죽도를 든 것은 부친 덕분이다. 그의 부친은 공부 잘 하는 둘째아들이 공부만 잘 하는 반쪽짜리 학자가 될세라, 검도에 입문할 것을 권유했다. 부친은 균형 잡힌 심신뿐만 아니라 나누는 삶도 유난스레 강조했다. 그런 부친을 따른 박교수는 정년퇴임 후 봉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가끔 아내를 업고 10여분씩 걷는 것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업어 날라 목욕시키는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일이다.

박교수의 문 열린 연구실에 방문하면 맑은 차 한잔을 대접받을 수 있다. 더 좋은 일은 차보다 맑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교수를 방문할 독자들은 잊지 마시길. 불시에 날아오는 죽도, 박교수의 ‘집중과 생각 사이’를. — 차정신기자

소망을 이루려면

세상의 빛깔들 14권/비비이나 마르까지 지음/채운경 옮김/96면/6,000원

엄마, 아빠에게 불만이 많은 라우라는 텔레비전에 나타난 막스를 통해 가족들의 사랑을 내어 주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렇지만 라우라는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는데... 과연 라우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니크

세상의 빛깔들 17권/안나마리아 가띠 지음/채운경 옮김/48면/7,000원

니크는 갓 태어난 찌꺼기 동생들을 귀찮게 여기고 하고 싶은 내기도 하지만 씩씩하고 행복한 강아지다. 어느 날 막스 아저씨의 이상한 친구들을 만난 니크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니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지저분한 이야기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4권/실비아 롤칼리아 지음/김홍래 옮김/144면/6,000원

사람들을 미친듯이 소비하게 만드는 ‘루구 초 주식회사’ 때문에 지구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바뀐 지 오래다. 하지만 쓰레기 냄새를 잘 맡는 네쌍둥이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임무를 시작하는데... 예상치 못한 재미 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820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 924-6161 편집 924-6165 팩스 922-4993

E-mail : phil6161@chollia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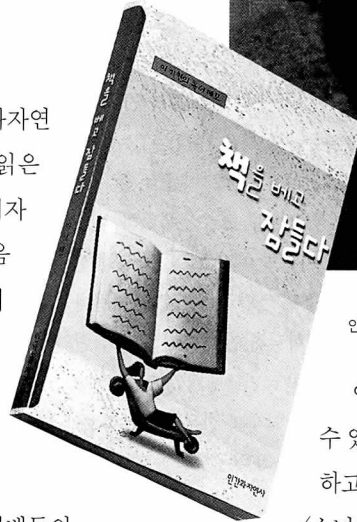
http://www.seokwangsa.co.kr

책을 먹고 자란 한 소녀의 독서편력기

《책을 베고 잠들다》 퍼낸 이기현양



이기현양
인간과자연사/A5신/284면/7000원



진주여고 3학년에 재학중인 이기현양(18)이 《책을 베고 잠들다》(인간과자연사)라는 '독서메모집'을 펴냈다. 중학교 때부터 5년간 3백여권의 책을 읽은 느낌을 모은 것이다. 프로그래머, 인터넷 창업 등에서 성공한 10대들이 저자로 나선 적은 있지만, 평범한 고등학생의 '독서일기'가 책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평범하다는 말에 이양이 화를 낼지도 모르겠다. 그는 사실 전국 독서 대상에 응모해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두번이나 수상한 베테랑이니 말이다.

“중3 때 상 받은 <사랑이 담긴 작은 소망>과 고2 때 같은 상을 받은 <가는 길>을 한데 모았어요. 중학교 때 쓴 것들은 생각이 어려서 고칠까 하다 제가 자라온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게 낫겠다 싶어 그냥 뒀습니다.”

이 책은 혼자 쓴 게 아니다. '고요독서회'에서 함께 토론했던 친구들, 선배들의 생각도 많이 스며 있다. 이양은 1997년 진주지역 학생들의 모임 '고요독서회'에 들면서 “깊이 있는 독서”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여러 사람의 관점으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시각이 넓어졌고 “또래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토론하는 게 즐거웠다.

이양이 소개하는 책들은 소설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철학서, 사회비평서, 역사서로 영역을 넓혀나간다. 나중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불확정성의 시대》 같은 책들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었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적으면 논리가 늘고 생각에 속도가 붙는다고 이양은 말한다. 학교 성적도 중학교 때보다 눈에 띄게 좋아져 요즘은 전교 10위권 안에 든다.

“책을 읽으면서 수업자세가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공부시간에 처음 대했으면 지루했을 텐데 책을 통해 '개인적'으로 먼저 만나니 관심이 가더라구요.”

공부에도 도움이 됐지만, 책은 특히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줬다. 해박하게 아는 것보다는 '두견의 현실'을 투시하는 법을 책이 일러준 셈이다. 이 부분은 윤홍길과 신영복에게 많이 빚졌다. 이양은 국문과에 진학할 생각인데, 대학에 가면 책을 더 열심히 읽어 “통찰력 갖춘 기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이 책은 어른들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이답고' '평범하고' '솔직하기' 때문이다. 김남천의 <소년행>을 읽고는 “참 대단한 누나다.

어쩔 이렇게 동생을 애뜻하게 여기는지. 나는 시끄럽다고 악기 연습도 못하게 하는데”라든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동생이 먼저 읽고 물어볼까봐 서둘러 읽었다”는 대목들이 그렇다. 이양의 고민들은 화려하거나 톡톡 튀지는 않지만, 청소년기의 고민이 오롯이 담겨있다. 객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전달한다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우선 어른들이 책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모님이 읽으셨던 책이 집에 많아서 마음껏 읽을 수 있었거든요. 제 독후감을 읽고 '이 책 재밌겠다' 하시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이양은 요즘 수능준비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다. 고1교실이 입원실이라면 고3교실은 영안실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시체'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의 약속을 믿고 버텨낸다고 한다. —강성민 기자

<p>출력" 24시간 당신을 위한 논스톱 대동이 책임지겠습니다</p> <p>자동하리교미무료</p> <p>대동전산</p>	<p>IBM & MAC 전문출력 Corel Draw, 아래한글, MS-Office, 훈민정음, 매킨토시용 기타 소프트웨어</p> <p>아래한글 및 IBM 분판출력 필름분판출력(4x6전지) 고해상대형드럼스캔 대형실사출력,CLC칼라출력 인화지,단도필름,레이저프린트 칼라복사(다량복사시할인) Data CD Backup</p> <p>출력문의 환영합니다</p>	<p>대동전산 2275-0196~7 E-mail : sogo0318@cho11ian.net</p> <p>명보극장 울지도4가 울지3가 지하1층 10번출구 울지도4가,지정</p>
---	---	--